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21-학인-00009 폭력·폭언 등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 父)

피 해 자 ○○○(○○○○학교 ○-○ 학생)

피 신 청 인 △△△(○○○○학교 교사/○학년 부장)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초상권(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교사의 폭력적 언행, 혐오표현은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교사 연수, 교육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 감수성  
니 원인이므로, 학교 교직원에게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을 시행하고,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  
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학교는 학생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생활교육 방식  
을 개선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고  
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 개요

가. 접수일자: 20\*\*. \*. \*\*.(월)

나. 신 청 인: □□□(○○○ 학생 아버지)

다. 피 해 자: ○○○(○○○○학교 ○-○ 학생)

라. 피신청인: △△△(○○○○학교 교사, ○학년 부장)

마. 신청요지:

1) 피신청인이 2019년경 종례시간에 학교 계단에서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 피해학생에게 “○○○ 이리 와”라고 했는데, 피해학생이 도망가자 “돼지새○ 잡아 와”라고 소리쳤다.

2) 2019년경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한 피해학생을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몸싸움을 하였고, 볼펜으로 피해학생의 손등을 찔러 피가 났다.

3) 2021년 5월 24일경 교실에서 피해학생이 제리뽀를 바닥에 던지는 장난을 치고 화장실에서 등목을 하였는데, 등목을 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나오는 피해학생에게 학교를 한 바퀴 돌게 하고 교무실에서 손을 들고서 있게 했다.

4) 위 3)의 상황(피해학생이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손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고, 현관 복도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5) 2021년 5월 15일경 피해학생이 체육시간에 환복을 하러 교실에 갔는데, 교실에 있는 학생을 사진 찍었다.

6) 2021년 6월 2일경 1교시 시작 후, 피해학생 외 2명의 학생이 층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따라와, 도망가면 죽어”와 같이 이야기하며 교무실로 데리고 갔고, 교무실에서 피해학생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하고, “돼○ 같은 놈이 돼○ 같은 말만 하네”라고 폭언을 하였다.

## 2. 관련규정

[붙임] 과 같다.

### 3.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과 피해자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 나. 피신청인 주장

2019년경 종례시간에 중앙현관에서 피해학생이 실내화가 아닌 신발을 신고 내려와 “○○○, 이리 와” 했는데 튀어서 선생님 말을 듣질 않으니까 존중해줄 필요가 없어서 “돼지새○ 잡어” 라고 외쳤다.

2019년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과 몸싸움을 했다. 이전에도 수업(○○○○) 시간에 피해학생이 여러 차례 수업을 방해했고,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끌어내려고 몸싸움을 했다.

2019년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에게 수업을 방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수업을 또 방해했고, 피해학생과 실랑이 했다. 볼펜으로 옷 입을 부분을 한 번 찌르고 끝내려고 했는데, 피해학생이 방어하다가 손에 닿아서 손등에 볼펜 점 크기의 상처와 2cm 정도의 생채기가 났다.

2021년 5월 24일경 점심시간에 학생들(○○○, ◎◎◎)이 급식으로 나온 제리뽕(과자) 3-4개를 뚜껑을 따서 바닥에 뿌리고 물을 뿌리면서 옷통을 벗고 놀았다. 이후,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등목을 했고, 5교시 시작중이 울리고 전교생이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복도에서 걸렸다. (피해 학생들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 복도를 한 바퀴 돌도록 하고, 교무실에서 손들고 7-8분 정도 서 있으라고 하였고, 학교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의를 탈의한 피해학생들을 중앙현관으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도록 시켰다.

2021. 5. 26.경 피해학생의 교복 미착용 사진을 찍고, 2021. 6. 1.경 피해학생이 체육 수업에 안 들어가고 교실에 있는 모습을 사진 찍었다.

2021년 6월 2일 1교시경 피해학생 외 2명의 학생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층계에 앉아 있어서, 3명의 학생을 교무실로 데리고 왔다. 피해학생이 “○○○○학교 입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마치면 교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면서 왜 상관하냐” 라고 말했다. 피해학생의 말투가 거슬려서 피해학생에게 “돼○ 같은 놈이 돼○ 같은 말만 하네”라고 말하고 “한 대 때려벌라” 했더니, (피해학생이) “때릴라면 때려요” 해서 핸드폰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학생이 “미○년 씨○” 이라고 욕을 하고 달려들려고 하자 담임교사와 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을 말렸다.

#### 다. 참고인 진술

##### 1) ○○○○ 학생(○학년 ○반) 진술

2021년 6월 2일 수업시작 5분 후에 계단에서 ○○○, ○○○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해서 갔다. △△△ 선생님이 “수업 시작했는데 왜 수업 안 들어가냐”고 말한 뒤 시험성적을 사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낸다고 했다. 저는 옆에 서 있었는데 △△△ 선생님이 ○○○를 스마트폰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그래서 ○○○가 때리면 신고한다고 했고, △△△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 머리를 세게 때렸다. ○○○가 신고해서 족쳐버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던 중에 ○○○가 미니선풍기를 △△△ 선생님 얼굴에 들이댔고, ○○○랑 △△△ 선생님이 서로 말싸움 하듯이 하다가 ○○○가 흥분해서 저, ○○○ 선생님과 ○○○이 말리는 와중에 ○○○가 진짜 미친년 아니냐고 했다.

## 2) ○○○ 학생(○학년 ○반) 진술

수업 시작하고 5분 후 쯤, ◎◎◎이랑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층계에 앉아서 ○○○○학교 이야기를 하었는데 화장실에서 ○○○가 너네 무슨 이야기 하나고 물어봐서 ○○○○학교 이야기 한다고 하였다. ○○○가 자기는 어떤 ○○○○학교를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다가 △△△ 선생님께 걸려서 교무실로 갔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 쌤에게 대들어서 말싸움이 일어났다. 말하는 도중 △△△ 선생님께서 ○○ 머리를 핸드폰으로 때리셨다. 그 다음 ○○가 화나서 쌤을 때릴려다가 ○○○ 선생님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가 △△△ 선생님께 미○년 시○이라고 욕을 했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5조도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나. 인정사실

위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은 2019년경 중앙계단 앞에서 피신청인의 지시에 불응한 피해학생에게 “돼지새○ 잡어”라고 말했다.

2) 피신청인은 2019년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잡아끄는 몸싸움을 하고, 볼펜으로 피해학생의 손등을 찔렀다.

3) 2021년 5월 24일 5교시경 피해학생과 ○○○ 학생이 화장실에서 등목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상의를 탈의한 두 학생에게 학교 복도를 한 바퀴 돌게 하고 교무실에서 7~8분 동안 손을 들고 서있게 했다.

4) 위 3)항의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의를 탈의한 피해학생들의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5) 피신청인이 2021년 5월 26일경 교복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학생을 사진 찍고, 2021년 6월 1일경 체육시간에 교실에 있던 피해학생을 사진 찍었다.

6) 2021년 6월 2일 1교시경 층계에 앉아있던 ○○○, ○○○, ◎◎◎ 학생에게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는다”와 같이 말하고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7) 위 6)항 이후 피신청인이 교무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돼○ 같은 놈이 돼○ 같은 말만 하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학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였다.

8) 위 7)항 이후 피해학생이 피신청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담임교사와 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 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 1) 물리적 폭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2)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2019년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잡아끄는 몸싸움을 하고, 볼펜으로 피해학생의 손등을 찔렀고,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교무실에서 상의를 탈의한 피해학생에게 손들고 서 있게 하였으며, 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교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위 인정사실 2)항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피해학생이 동작이 빨라 군밤 한 대도 못 때리고...”, “이날



피해학생과 실랑이 하다가 볼펜으로 옷 입은 부분 한번 찌르고 끝내려고 했는데...”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진술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볼펜으로 옷 입은 부분 한번 찌르고 끝내려고 했는데”와 같은 진술로 볼 때,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군밤을 때리기 어렵자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볼펜으로 찔렀다고 볼 수 있어, 볼펜으로 피해학생을 찌른 행위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 7)항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이 “때릴라면 때려요”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2)항과 7)항의 체벌 상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손에 들고 있거나 주위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학생을 체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 2) 언어폭력과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 7)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에게 “돼○ 새○”, “돼○ 같은 놈”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이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새○”, “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새○”는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이며, “놈”은 남자를 낮추거나 욕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에 더해 사람을 “돼○”라고 일컫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에게 사용한 “돼○ 새○”, “돼○ 같은 놈”은

피해학생에게는 모욕감, 분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며, 피해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이 입은 정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3)항, 4)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상의를 벗은 상태의 피해학생에게 학교 복도를 한 바퀴 돌게 하였고, 교무실에서 손 들고 서 있게 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 상의를 벗은 몸을 사진 찍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이 피해학생의 벗은 몸을 전시하고, 사진 찍히도록 한 행위는 피해학생이 인격을 지닌 존재가 아닌 비인격체(“돼지”)라는 피신청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혐오표현의 한 예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 또한,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며, 피해학생이 입은 정서적,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초상권<sup>1)</sup>(합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위 인정사실 4), 5)항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에게 상의를 벗은 채로 학교 복도를 한 바퀴 돌도록 하고, 학교의 공익근무요원에게 피해학생들의 상의 탈의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피신청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교복을 입지 않은 피해학생을 사진 찍고, 체육시간에 교실에 있던 피해학생을 사진 찍었다.

---

1)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며, 인격권 안에 초상권이 포함되고, 합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이용거절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재산권)가 포함된다.

피신청인은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고, 실제 학부모에게 자신이 촬영한 학생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신청인은 생활교육의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학생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함부로 얼굴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잘못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학생의 사진을 학부모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피해학생들과 학부모에게는 일종의 경고, 위협으로도 읽힐 수 있는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더해, 상의를 탈의한 피해학생들의 사진을 찍도록 공익근무요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피해학생들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피해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 라. 소결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치심, 모욕감 등을 불러일으키거나,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초상권(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와 같은 폭력행위와 인격권, 초상권 침해 행위는 학생 인권

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생활교육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폭력행위와 혐오표현 등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상당했을 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1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정 경 아 (인)

## [붙임]

### 관련 법령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